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하느님, 성가정을 통하여 참된 삶의 모범을 보여 주시니,
저희가 성가정의 성덕과 사랑을 본받아,
하느님의 집에서 끝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공동체 소식]

▣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안내

- 내용 :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은 나자렛의 성가정을 기억하며 이를 본받고자 하는 축일입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2001년부터 해마다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부터 한 주간을 ‘가정 성화 주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가정에 함께 계신 하느님을 참가장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넘치는 보금자리로 가꾸어 나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 내일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세계 평화의 날)’로서 ‘의무 대축일’입니다.

- 미사:내일 Jan. 01, 2017 오전 11:00.
- 내용:교회는 2018년 새해 첫 날을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로 지냅니다. 복되신 동정 성모께서는 이 세상에 하느님을 낳아주셔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또한 하느님께서서는 성모님을 당신 자녀들인 우리의 어머니도 되게 해주셨습니다. 성모님께서 천상에서 누리시는 영광을 기념하고 경축하며, 이날을 기쁘게 지내야 하겠습니다.

▣ 2018년 1월 ‘본당 평일 미사’와 ‘첫토요 성모신심 미사’는 없습니다.

▣ 이민자들의 날 미사 안내 (※이날 본당미사는 없습니다.)

- 일시: 2018/1/14(주일) 정오 12:00, 다과회 오후1:00-2:00.
- 장소: Cure of Ars Catholic Church, 9401 Mission Rd, Leawood, KS 66206.

▣ 교무금 완납 및 책정에 대한 안내

- 내용: 교무금은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부담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성경에 “여러분이 되질하는 바로 그 되로 그 대들도 받을 것입니다.”(마태7,2)라고 되어 있듯이, 하느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은총은 조금의 오차도 없습니다.

▣ 성탄 미시전례진행, 예물봉헌, 제대꽃 봉헌 및 나눔친교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꽃 봉헌해 주신 분: 김대연, 김화년, 이영민, 김진미, 박태주, 김말자, 이경남, 김경돌, 박동희, 김정자, 정연숙, 박계숙)

▣ 전례 성가

	시 작	예 물	성 체	파 견
금 주 (12/31)	114	217	153	199
1월1일	239	220	502	44
차 주 (1/7)	497	512	174	100

▣ 전례 봉사자 및 복사

	해설자	제1독서	시중 복사
		제2독서	향 복사
금 주 (12/31)	김주연 세실리아	박대주 로마노	정예진 한나
		김명희 리드비나	정예찬 미카엘
1월1일	김명은 안젤라	홍순익 마르띠노	차민서 임마누엘
		최은미 아네스	이원준 요한
차 주 (1/7)	김대연 요셉	전용진 로렌스	김정원 안젤라
		조진환(베드로)	-

▣ 애찬 봉사자

금 주	김주연, 박희영, 이영민
1월1일	특별조
차 주	김말자, 김화년, 안현숙

▣ 헌금 봉사자

금 주	김대연 요셉, 전용진 로렌스
1월1일	이내익 베드로, 이우영 가브리엘
차 주	강영진 라파엘, 강승석 도미니코

▣ 우리들의 정성

	영성체	헌금	교무금
12/24주일	51 명	337 달러	170 달러
12/24성탄밤	49 명	153 달러	354 달러
12/25성탄낮	51명	225 달러	480 달러
박동희, 김호원, 박태주, 김동술 (총 4세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시간
주 일:11:00 AM
화요일: 7:30 PM
수요일: 7:30 PM
목요일:10:00 AM(교육관)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코린 4,18-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2017년 12월 31일
2018년 1월 1일

주임신부:홍 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 장:이우석 프란치스코
M: 816.616.0033

재 무:김병철 베네딕도
M: 913.710.0770

오늘의 전례



성가정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비오로팔수도회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나자렛의 성가정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을 가정의 중심에 모시고 가족이 화목하게 살아가도록 합니다. 해체된 가정과 위기를 겪는 가정에 주님께서 은총을 내리시어,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12월 31일)

제 1 독 서 : 집회서의 말씀입니다. 3,2-6.12-14

화 답 송 :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네 손으로 벌여 네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

○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밭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 ◎

○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 3,12-21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

복 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22-40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1월 1일)

제 1 독 서 :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6,22-27

화 답 송 :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

○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로 심판하시고 세상의 겨레들을 이끄시니, 겨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

○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갈라티아서 말씀입니다. 4,4-7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하느님이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

복 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16-21

쉐 마

서로 공경하며 주님께 의탁하라

아오늘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명과 서로 간의 사랑으로 하나를 이룬 성가정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가정의 모범입니다. 이러한 성가정을 기념하는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은 성가정이 되기 위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에 관해 잘 알려줍니다. 이 점들에 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집회서에 따르면 성가정은 부모에 대한 공경이 넘치는 가정입니다. 사실, 주님을 믿고 따르며 성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이들은 당연히 아버지를 공경하고,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런 이들은 죄를 용서받고, 자기 자녀들에게서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장수할 것이고 그의 기도는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효행은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콜로새서도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것이 주님 마음에 드는 일임을 밝힙니다. 하지만 콜로새서는 부모도 자신에게 지켜야 할 도리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바로 자녀들을 들볶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들이 자녀들을 들볶는다면 그들의 기가 꺾이게 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마련하신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정에서는 예수님 같은 분이 탄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콜로새서는 이와 함께 부부간에 지켜야 할 도리도 설명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모질게 대해서는 안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다소 남녀 차별적 권고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이 2000년 전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은 남녀 차별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라는 가르침임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콜로새서는 성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뿐만 아니라 부부간에도 서로 배려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가정은 한쪽 편의 희생만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한쪽 편의 의무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와 자녀, 부부, 형제간에 서로 지켜야 할 선을 잘 지키며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때 올바른 성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은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성가정의 모범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명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계명 하나까지도 지키고자 했던 이들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던 예언자 시메온은 그들 가운데 태어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뜻에 따라 탄생하신 이스라엘의 참된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께 가장 철저히 순명한 우리 모두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시메온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뚫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사실, 성가정이라고 해서 세상의 고통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고통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속량을 위해 아이의 목숨마저 내어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성가정이 된다고 해서 세상의 행복을 누린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가정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이들로 이루어져 있기에 자신들에게 닥친 고통마저도 하나님 뜻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어찌보면 이것이 성가정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 구성원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탁하는 삶을 사는 것 말입니다.

교리산책

향주덕(向主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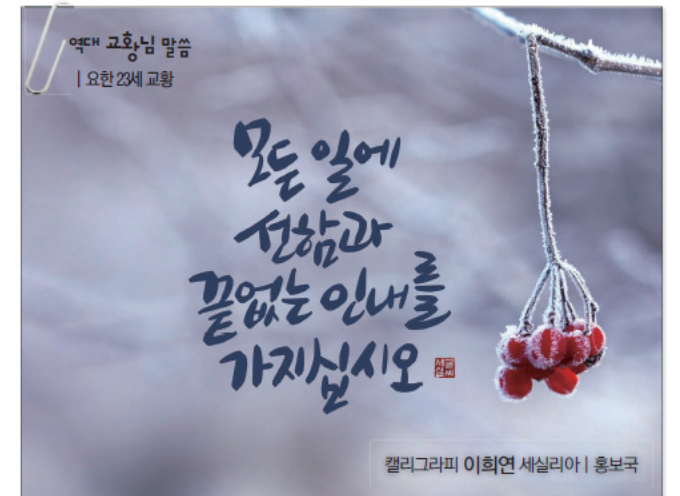
믿음, 희망, 사랑.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있는 이 세 덕행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 되기 때문에 향주덕 혹은 향주삼덕이라 부릅니다. 향주덕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 행동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격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신 것과, 거룩한 교회가 우리에게 믿도록 제시한 모든 것을 믿게 하는 향주덕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자유로이 맡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이며, 그 길은 당신 자체인 진리로 우리를 이끕니다. 믿음은 사랑을 통해 그 진실됨이 드러납니다.(갈라 5,6 참조) 누가 실제로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지 아닌지는 그의 맹세가 아니라 그가 행하는 사랑의 행위를 통해 드러납니다.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야고 2,26 참조)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신뢰하며 성령의 은총으로 우리의 행복인 하늘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게 하는 향주덕입니다. 희망은 우리가 실망하지 않게 보호하고 언제나 힘을 북돋아 주며 영원한 행복에 대한 기대로 마음을 열어 줍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끝까지 견디어 낼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착한행실에 대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으로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얻게 되리라고 희망해야 합니다. 교회는 희망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1티모 2,4) 기도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헌신

하게 하는 향주덕입니다.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이웃을 자신처럼 무조건적으로 진심을 다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이며 율법의 완성인 사랑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게 합니다. 모든 덕의 실행은 사랑에서 활력을 얻고 사랑으로 고취됩니다. 사랑은 모든 것에 혼을 불어넣습니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 주는 끈”(골로 3,14)이고, 모든 덕의 바탕이며 덕들을 연결하고 질서를 지어줍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이 닦아야 할 덕의 근원이며 귀결입니다. 사랑의 덕은 우리의 인간적 사랑의 능력을 확고하게 하고 정화합니다. 사랑의 덕은 인간적 사랑의 능력을 하나님 사랑의 초자연적 완전함으로 들어 올려줍니다..

유한민 마르첼리노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



캘리그래피 이희연 세실리아 | 홍보국

복음묵상

곰곰이

곰곰이 되새겨봅니다. 지난 한 해 부족했던 것들 지난 한 해 감사했던 것들 곰곰이 되새겨봅니다. 자격 없지만 자격을 보지 않으시고 부족하지만 부족함을 보지 않으시던 그분 되새긴 마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루카 2,19)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루카 2,19)

임의준 신부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